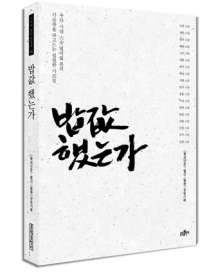


밥값 하며 당당하고 인간답게 살려면?

밥값 했는가

불교신문·불광 공동기획 | 불광 펴냄 | 1만 2천원



우리가 스님들의 감로법문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괴로운 삶에서 위안받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고민들을 숙명처럼 안고 산다.

돈, 마음의 상처, 사람사이의 갈등 등등. 이런 이유에서 삶이 행복하지 않다. 또 어느 하나가 해결되더라도 금세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워 여전히 삶은 험잡다. 그래서 법회때면 이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다. 꼭 고민이 없더라도 우리는 법문을 꾸준히 들어야 한다. 법문이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보게 해 괴로움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을 일러 주어서이다.

이 책에는 우리 시대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열여덟 분 스님의 법문을 한데 모았다. 법문은 한자로 '法文'이 아니라, '法門'이다. 법(法), 즉 진리로 들어가는 문(門)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진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밝히는 법문을 통해, 그토록 우리를 괴롭혀왔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매년 명법문을 가려 뽑아 한 권으로 묶은 '기억에 남는 명법문' 시리즈 여섯 번째이다. 前 조계종 원로의원 의장 도원 스님(대구 파계사 조실)을 비롯해, 수행과 전법 현장서 가르침을 베풀며 몸소 실천하는 열여덟 분의 생생한 법문이 지상(紙上)에 펼쳐졌다. 이 감로법문들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살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괴로우며, 행복과 자유의 길은 정녕 나오는 동떨어진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의문들이 우리 시대 수행

자들의 육성을 타고 눈 녹듯이 풀어진다. 율곡계 수행 생활을 이어온 수행자는 생로병사, 즉 인생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화하여 법문으로 풀어내기에, 그 가르침은 절절하게 다가와 우리 삶을 바꾸는 희망으로 작용한다. 탈출구가 필요해 여행도 떠나보고 탐볼

18명 스님들 명법문 실어

진정한 삶의 해법 제시

"삶의 본질 꿰뚫어야 번뇌 소멸"

스태이에도 참여해 본다. 하지만 그때뿐, 여전히 삶은 녹록치 않고 마음은 쉬어지지 않는다.

왜일까? 삶의 핵심, 즉 본질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만든 상(相)에 갇혀, 자신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바닷물을 가져와도 그 맛이 짜듯, 인생의 어느 문제를 가져와

도 불법의 이치에 대입해보면 모두 해결된다. 본질을 꿰뚫어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 개인의 문제 해결은 물론, 이웃의 짐도 덜어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책은 평생 수행과 전법에 전념한 도원·성타·월주·해종·고우·대원 스님 등 어른스님을 비롯해 송광사·백양사·조계사 주지스님 등 대중과 빈번히 소통하는 우리 시대 스님들이 불법의 이치를 깨쳐 도록 설명한 법문집이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었어도 현실서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지로 인해 이미 오랫동안 습관화돼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본별심이 일어나고 그대로 행동해버린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참회하는 정진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책속의 밑줄 긋기 - 스님들 주요 법문 모음 (책 편집 순)

참깨달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자비를 구현할 때에야 이뤄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 없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가령 사랑이란 단어엔 증오라는 반대말이 있어요. 그러나 자비에는 반대말이 없어요. 사바세계의 중생이 진정 목말라 하는 것은 미움과 증오의 반대로서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반대어도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자비라는 광명체입니다. <성타 스님>

똑같은 '짚'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고우 스님>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정치를 하고,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100% 실패합니다. 내 괴로움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실을 살면 끊임없이 문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모든 곳에서 항상 시비분별과 불협화음의 고뇌 속에 살게 됩니다. 고통과 근심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괴로움이 해결된 사람이 기업가, 정치가, 학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극락세계와 닮았듯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원 스님>

마음이 어둠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지나갑니다. 항상 맑고 밝고 활기차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모습이 바라길 행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현 스님>

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님이 스스로 이뤄내는 것입니다. <원경 스님>

이 세계는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일러주는 스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노래 속에서, 내가 쉬이 듣고 깨친다면 그 아이가 스승이요, 노래를 부르는 아이에게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바로 법을 구하는 선제 동자입니다. <중훈 스님>

"일꾼은 공부를 해도 일 삼야 공부부를 하고, 공부꾼은 일을 해도 공부 삼야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수행자에게는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것까지도 공부여야 합니다. 공부가 따로 있고 자기의 삶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오면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배고르면 오히려 불식(不食)하고 일종식(一種食)도 하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현 스님>

부처님께서는 인과(因果)란 한 치의 오차 없이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살다보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먹고 사는 이들을 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업(業)의 씨앗이 영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생에 받지 않으면 다음 생에 언젠가 그 과보는 받게 됩니다. <무상 스님>

가까운 사람을 절에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출가 전에 동생과 친구를 포교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오래도록 힘들게 설득해 절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내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형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뭐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행동을 돌아보고 조심하게 됐습니다. 포교는 남을 교화하면서 동시에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경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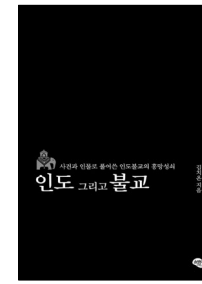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들, 탁한 부분들을 맑게 해 마음을 밝힘으로써 업장이 맑아지게 되는 수행입니다. 업장은 업으로 인한 장애입니다. 그 장애가 맑아지면 그동안 장애에 의해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전보다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피를 내

마음을 닦는 이유는 텅 빈 허공처럼 자유롭고 맑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대자유인,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 남편은 이랬고 누구 자식은 저랬다는 이야기들은 다 소용 없습니다. 그저 그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도를 닦는 것일 뿐입니다. <무각 스님>

사건과 인물로 쓴 인도불교 흥망성쇠

인도 그리고 불교

김치은 지음 | 울리브그린 펴냄 | 2만원



저자는 <인도 그리고 불교>에서 석존 이전부터 시작해서 석존의 출가와 성도, 전도와 열반, 교단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경전의 내용에 따라 살피고, 대승불교가 일어나 전개되는 과정들 또한 경전의 내용들을 살펴가며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 동안 진각종 기관지인 밀교신문에 연재한 것이다. 저자가 연재 결정이 되었을 때, 인도불교 관련에 걸쳐 일어난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보자고 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인도불교사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들과 교리적인 내용들을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사실들이 일어나게 된 사건과 인물들의 정황 그리고 교리적인 배경 등은 알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 착안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후 관계와 배경 등을 경전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불교내에 밀교의 흐름을 포착하고 점차 밀교가 표면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힌두교적인 내용과 결합해 전면에 부각되면서 그와 함께 인도에서 불교와 함께 쇠퇴해가는 것도 고찰했다.

인도문화사에서 불교의 탄생은 인류의 삶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과 실체성을 지닌 몇몇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주된 흐름인 상황에서, 실체성을 지닌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는 관

점서 일체는 상의상관적인 관계성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연성연기의 세계관은 위대한 깨달음이었다. 붓다는 최초로 사성제를 설해 안나파 고타나가 연기를 보는 눈(法眼淨)을 얻었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고타나야 깨달았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오운 무아를 설해 그들이 무아 즉 공(空)을 체득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법안정과 공의 체득이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와 밀교는 연기법을 통해 무아를 체득하고 교해에 빠진 민중들을 구하기 위해 지혜와 자비 그리고 무수한 방편을 지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계를 지키고자 하는 수행자와 생활속에서 주어진 계를 지키려는 교도들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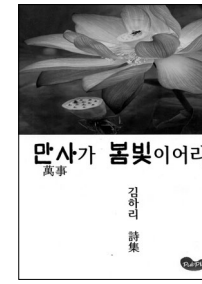
저자는 머리말에서 "종교의 생명력은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청정한 마음에 달려 있다. 진정한 해탈은 지혜에 청정한 자비가 함께할 때이며, 지혜에 자비를 빙자한 탐욕이나 방편을 빙자한 탐욕이 포함한다면 이것은 민중을 속이는 것이며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라며 "인도불교의 흥망성쇠는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 불교를 믿는 불교도들은 물론 불교가 점차 일어나는 서구 사회에서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준다"며 "그러한 점에서 인도사회서 불교가 탄생한 배경과 인도불교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인물들의 정황 그리고 교리적인 변천 과정들은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경계 물들지 않는 마음 詩로 승화

만사가 봄빛이여라

김하리 지음 | 퍼플 펴냄 | 7600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공(空)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한없이 길기도 하고 점초처럼 짧은 것"(空 중에서)

자 김 시인은 음성 포교를 위해 불교 시(詩)와 찬불가 보급에도 앞장서 왔다.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부모은중경> 등 독송 CD가 그 결과물들이다. 또한 2014년에는 한글법화경 CD를 6개월에 걸쳐 제작하기도 했다.

불교시집은 2006년 '여여하니 여여하다'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시인은 이번 시집 서문에 "찰나를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부처다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며 "만사가 봄빛이라는 말처럼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불법과 부처님 자비심을 시(詩)와 음성포교로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책은 총 4부에서 11권의 시집과 수필집, 심리학 책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내는 등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시작한 이 책의 저

김주일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둬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www.hyunbulshop.com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동해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육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건보탑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요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탑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정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인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